

'거문고 명인' 허윤정 "국악이 경쟁력"

국악그룹 최초 獨 재즈음반사와 앨범 제작 데뷔 앨범 '마스크댄스' 10월 중순경 발표 내년에 '재즈 본고장' 미국시장으로 진출

"해외에 나가 보니 국악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문고 명인 허윤정(48)이 이끄는 즉흥 음악 앙상블 '블랙스트링'이 국악그룹 최초로 독일의 굵직한 재즈 음반사 ACT를 통해 앨범을 낸다.

세계적으로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ACT는 역시 독일의 재즈 레이블인 ECM과 함께 유럽의 양대 재즈 음반사로 통한다. 세계적인 한류스타 재즈보컬 나윤선을 비롯해 스웨덴의 거장 트롬본 연주자 닐스 란드그렌 등의 앨범을 내놓고 있다.

올해 5월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된 재즈 마켓인 '재즈어헤드(Jazzhead!)'에서 데모 음반을 들은 ACT의 지기 로호 회장이 관심을 표하면서 성사됐다. 블랙스트링은 이 레이블에서 정규 음반 다섯 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중 멤버들끼리 ACT에서 내면 정말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정말 꿈이 이뤄진 것죠. 게다가 한장도 아니고, 다섯 장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희를 통해 재즈의 경계를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해봐요."

총 7곡이 실린 데뷔앨범 '마스크댄스'는 10월 중순경 발매 예정이다. 앨범에 실린 곡의 타이틀이기도 한 제목은 처용무(處容舞)에서 따왔다. 궁중이나 관아의 의

례에서 처용(處容)의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아내는 춤이다.

"앨범에 실린 또 다른 곡으로 국악 장단인 철채를 바탕으로 한 '세븐 비츠(Seven Beats)'와 비슷한 패턴 2012년에 만든 곡이예요. 제가 처용이라는 설화를 좋아하는데 춤, 음악, 연기 등이 녹아 있는 종합 예술이죠. 전통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고, 현실 세계랑 동떨어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도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 색깔 자체가 그래요."

2007년 미국 록펠러재단의 레지던스 아티스트로 선정돼 뉴욕에서 재즈 뮤지션을 만나는 등 꾸준히 재즈와 협업한 허윤정은 국악과 재즈가 기반이 다르지만 통하는 면이 많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재즈 뮤지션과는 음악적인 정서가 비슷해요. 굉장히 편하죠. 뉴욕에서 재즈 뮤지션과 즉흥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 마치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이질감을 전혀 못 느꼈어요. 국악이건 재즈건 국내에서 좋은 뮤지션들을 만나는 건 제 성장에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음악 등 예술은 소통이고 상상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유연해지죠."

허윤정은 남성적인 국악기인 거문고에 유연한 여성의 숨결을 불어넣은 주인공으로 통한다. 모성애를 품는 그녀의 거문고 소리는 묵묵히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런



데 거문고는 개량이 힘든 고집스런 악기로 알려졌다. 그래서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악기 중 하나다. "그런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 거문고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랙스트링이라는 그룹명은 거문고를 가리킨다. "잡다"는 거문고라는 명칭의 어원 중 하나로 '잡다'가 꼽힌다. 하지만 허윤정은 중심으로 오정수(기타), 이아람(대금·양금), 황민왕(아쟁·장구)으로 구성된 블랙스트링은 다채로운 음색을 내는 팀으로 통한다.

"연주자들이 굉장히 유연해요. 뒤지지 받아들이는 자세와 호기심이 크죠. 리드하고 책임지는 최종 결정은 제게 있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멤버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마치 제 생각이듯 따라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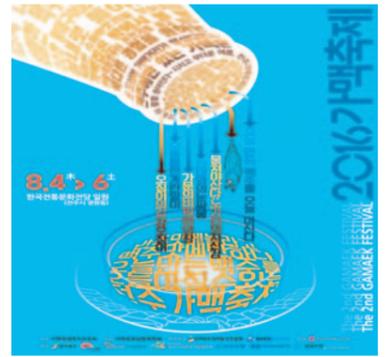
10월 19~23일 스페인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엑스포 '위멕스(WOMEX)'의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로 선정된 블랙스트링은 내년에 재즈의 본고장으로 통하는 미국 무대를 노크한다.

해외에서 활동할 때 당위성과 명분이 앞서기 쉽다. 특히 국악을 갖고 해외로 나갈 때 애국심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허윤정은 하지만 "그런 부담에 눌려 음악적인 자유로움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블랙스트링이 결국 해냈다' 허윤정이 돌파구가 됐다"는 말은 힘이 되고 좋지만 그런 성과보다는 마음껏 음악을 펼쳐보이는 자유로운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후배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저희들의 활동에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김민근 기자



맥주로 에너지 충전 내달 4~6일 전주가맥축제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가게에서 맥주와 인주를 거품 없는 가격으로 건너하게 한 잔 할 수 있는 생활음주문화를 일컫는다.

전주의 가맥은 1980년대 초반 당시 도청과 시청 등 관공서가 몰려 있던 중앙동과 경원동의 작은 가게에서 태동했다. 가게 한편의 공간에서 시작된 가맥은 당시 싸지 않았던 맥주를 비교적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인들과 서민들이 선호되고 이는 전주만의 독특한 술 풍속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전주만의 생활음주문화로 자리잡은 가맥을 조명하고 관광객유치 하기 위한 제2회 전주가맥축제가 8월4일~6일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가맥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은성슈퍼, 이종꿈의공장, 새움가맥, 경원상회, 전일감포, 슬기네, 입실슈퍼, 영동가맥, 안행광장, 삼천광장, 전주가맥, 청춘가맥 등 12개 가맥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주 완주공장에서 갓 출하된 거품 풍성한 신선한 맥주를 즐길 수 있으며 여기에 바삭바삭한 식감의 황태구이와 감포장어, 달걀말이 등의 소담한 안주가 곁들여져 맥주맛의 풍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땀, 월드뮤직 앙상블 '원' ... 남북음악 하나로

월드뮤직 앙상블 '원'이 결성됐다. '圓, one, 하나이고 독보적이며 누구나 원(want)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윤석만(한국 전통대금·소금·태평소)을 대표로 음악감독 윤은화(작편곡·양금·목금), 총무 최민(북한 개량대금·개량소금·통소), 방달화(북한 해금), 박종성(서양 기타), 허경민(타악)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빚어내는 농축된 소리는 거침없고 역동적이다. 남과 북의 전통·현대 국악기와 동서양의 악기를 망라한 '원'의 배합 앙상블은 여느 국악그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윤은화 음악감독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한국 전통음악, 북한음악, 서양음악과 대중음악을 융합해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한민족의 만남을 소리에 담아내고 있다. 민족분단의 아픔과 세계평화의 메시

지를 음악에 실어 지구촌에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지난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 프런티어 1위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올봄 프랑스 마르세유 독 데 쉬드의 음악마켓 '바벨메드 뮤직'에서 초청 쇼케이스를 펼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원'은 '아리랑'을 엮은 '아리랑 연곡'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인 '어울림 시나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緣)' 등으로 자신들의 음악색을 드러낸다. 각 지역의 아리랑을 재해석하고, 전통음악의 변화무쌍한 리듬구조를 활용해 즉흥음악인 시나위에 접목했다. 올 가을에 나오는 '실사구시 서울아리랑' 음반에 음악감독, 작곡자, 편곡자,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8월14일 광주MBC TV '우리나라 우리문화'를 통해 '원'을 즐길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월드뮤직 앙상블 '원'이 결성됐다. 윤석만(한국 전통대금·소금·태평소)을 대표로 음악감독 윤은화(작편곡·양금·목금), 총무 최민(북한 개량대금·개량소금·통소), 방달화(북한 해금), 박종성(서양 기타), 허경민(타악)으로 이뤄졌다.

내달 12일 전북 문화재 낭송·낭독대회

시·소설·수필·동시·동화·희곡 등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재발견하는 '문학작품 전라북도 문화재 낭송·낭독 대회'가 오는 8월 12일 오후 7시 전주한옥마을 내 오목대에서 열린다.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야행추진단이 주관하고 전북작가회의 최명희문화관, 애기보따리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전라북도 소재 유·무형 문화재를 찾아서 소개하고 낭송·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대회 주제는 김제 귀신사(대적광전·보물 제826호)를 배경으로 한 양귀자의 소설 '숨은꽃'과 완주 화안사(극락전·국보 제316호)를 테마로 한 안도현의 시 '화안사, 내 사랑' 등 이를 참조해 선정하면 된다.

기존 문학인의 경우 자신의 창작품도 가능하며, 작품의 전문·부분·특정 부분 편집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낭송·낭독시간은 3분에서 5분까지 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7월 29일~30일 메일(jeonjubul@mate.com) 혹은 최명희문화관을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장원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되는 등 본선에 진출한 모두에게 상장과 총 1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063-284-0570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7일)

<p>▷쥐띠 46년생: 힘든일이 생기나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60년생: 매사 바쁘게 일이 돌아오니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72년생: 큰 욕심을 부리지않는다면 무난한 하루가 될 것이다. 84년생: 이성과의 일로 신경 쓸 상황이 발생한다.</p>	<p>▷소띠 49년생: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되돌아오는 운. 61년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운. 7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화합이 잘 되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도 고마워할 일이 생기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p>	<p>▷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 판단 못할 수 있다.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순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수 발생.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88년생: 자신보다 여러라고 무시하는 인행은 삼가라.</p>	<p>▷뱀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흉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약속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말띠 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으나 적대감을 갖게 되면 경쟁자로 돌변한다.</p>	<p>▷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작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본 상황 일이 발생.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여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p>	<p>▷닭띠 57년생: 같은 화려하나 내면은 부실한 운. 69년생: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81년생: 상대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93년생: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말실수를 조심하라.</p>	<p>▷개띠 46년생: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58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 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 중간 막히는 운. 82년생: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라.</p>	<p>▷돼지띠 47년생: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아야. 71년생: 투지나 투기는 금물. 83년생: 문서에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문서정리나 서류정리에 좋은 운이다.</p>